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5년 12월호

통권 제 154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ANDONG

안동교회  
PRESBYTERIAN CHURCH

## 11월 교우소식

### 새 교우

♣ 김우섭씨(64년생), 종로구 삼청동 35-148  
☎ 018-212-0222, 김우섭씨는 신영식집사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 전에는 온누리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 건축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생활이 바빠서 아직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 고해란씨(86년생), 종로구 안국동 90  
☎ 010-8863-3147, 고해란씨는 교회에서 안국역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백두산'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곳 주인의 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엔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을 할 예정이나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 손은자씨(60년생), 종로구 안국동 38-11  
☎ 741-4596, 손은자씨는 한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안국동으로 이사오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전에 다니던 장로교회를 찾아 우리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 강선영씨(61년생), 종로구 원서동 135-3  
☎ 3675-7689, 강선영씨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남편과 함께 <동화컴퓨터크리닝>이라는 세탁소를 하고 있다. 이생림집사가 교회로 인도하였으며 얼마전에 등록된 강정녀성도와는 서로 학부형으로서 이미 오래 전에 친분을 맺고 있는 사이라서 교회가 그리 낯설지는 않다. 남편과 이번에 대학에 수시합격한 아들 시영이와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 덕영이가 있다. 등록심방을 마쳐 3교구에 소속되었다.



♣ 유정희씨(67년생), 종로구 가회동 11-28  
☎ 3672-6011, 유정희씨는 이전에 동운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남편과 부모님이 동문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보내면서 안동교회에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었다. 우리교회에는 이미 2년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결심하고 등록을 하여 안동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었다. 자녀들은 큰딸 김마리가 아동부 2학년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들 김태우는 유치부에 다니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투어넷 포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2교구 5구역으로 교구장은 안부강집사이다.



♣ **홍경임**씨(48년생), 종로구 재동 17 ☎ 011-9030-5022 홍경임씨는 이 동네에서 20년을 넘게 교육관 근처의 사거리에서 <재동지물포>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아들내외가 지난 7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몇 주 후에 호주로 유학을 떠났고, 신앙이 좋은 큰 며느리는 부친의 서강교회에 다니고 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안동교회에 계속 다녔었고, 본인도 간혹 교회에 온 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이경자권사, 고옥희권사 등 지인들이 많이 있다. 3교구 7구역으로 교구장은 고옥희권사이다.



♣ **정장미** 구리시 교문동 한가람 A104-1706 ☎ 011-496-2911 반석교회출신으로 2부예배 찬양대 솔리스트로 부임했다.  
 ♣ **전원갑** 종로구 행촌동 독립문한증막 2층 ☎ 735-8731. 임마누엘교회 출신으로 2부예배 찬양대 솔리스트로 부임했다.  
 ♣ **김삼임**씨(67년생), 종로구 원서동 135-123 ☎762-9941, 김삼임씨는 이미 지난 여름에 교회에 가등록을 했었다가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두 주일 먼저 등록한 강선영씨와 학부모 친구로서 친분을 갖고 있다.



## 별 세

- ☎ **故 김학유**집사(오군자권사 어머니)는 83세를 일기로 14일 별세하셔서 16일 장례를 마쳤다. 집례는 진천교회 이익삼목사가 담당하였고, 유족은 3녀 1남이며 오군자 권사는 장녀이다.
- ☎ **故 신원경** 교우(오정숙 권사 부군)는 90세를 일기로, 11월 25일 별세하여 28일 장례를 마쳤다. 오동환집사의 자형이 되신다. 장례는 갈보리교회에서 집례하였다.

## 부 임

- ☎ **홍기순** 목사, 1일(화)부로 어린이집 원감으로 부임
- ☎ **안소영** 선생, 2부예배 반주자로 20일(주일) 부임.

## 세례 및 입교

- ☎ **세례**- 김유정 이기쁨 이주형 최아람 고현창 김지희 김진영 김태랑 노기용 박남수 이상예 (11명)
- ☎ **입교**- 변경만 박금옥 (2명)

## 환 자

- ☎ **남택권** 교우(신지원 교우 남편, 신영식 집사 사위) 상계백병원 1503호.
- ☎ **박승희** 교우(김정수 권사 자부), 백병원 605호.
- ☎ **이순혜** 권사(이재근 교우 부인), 백병원에서 무릎 관절 수술받고 퇴원 후 회복 중
- ☎ **임중대** 집사(문애자 집사 부군), 백병원 1220호.
- ☎ **장문자** 장로(오정섭집사 부인) 상계백병원 1514호.

- ♣ 남궁열 집사(장미화 집사 부군), 백병원 1006호.
- ♣ 김순옥 교우(명순식씨 부군)  
서울 기독교병원 511호.
- ♣ 안효구씨(안일현 집사 부친), 세란병원 327호.

## 감 사

- ★ 이효순 집사, 교육관에 관상식물화분 3그루 기증
- ★ 백낙환 집사·박숙란 장로, “아하박사님과 과학하고 놀기” 70권 아동부에 기증.
- ★ 배덕윤 집사, 고구마·절인고추·늪은 호박 15개 사회봉사국에 기증.
- ★ 12교구에서 주방 전기밥솥(35인분) 기증.

## 축 하

- ♣ 서동진 군(중고등부 지휘), 12일(토) 오후 7:00 가톨릭대 음악과 오페라 “모짜르트의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에 출연.
- ♣ 민동립 집사 오르간독주회, 15일(화) 오후 7시 30분 소망교회.

## 이 사

- ♠ 새가정 - 이석준 집사 김광은 교우, 마포구 도화동 삼성A 101-702호 ☎ 010-7650-5321
- ♠ 홍동근 집사 전해란 교우, 양천구 신월2동 1037 장수마을A 304-502호.

## 출 국

- ♠ 김기원 집사(유연준 권사 딸), 유럽순회공연차 출국 (10.20-11.25).
- ♠ 김희진 권사,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중국 십양 선교지 방문차(9-15).
- ♠ 김영석 장로, 호주 출국(15-22).

## 교육관 개축 완공예배

11월 6일 교육관에서 교육관 개축 완공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리모델링을 잘 마치고 그날 아동부와 유치부는 새 교육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으며, 어린이집은 3월 2일 개원예정이다.

##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올해 대림절은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성탄절까지 계속된다.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되었는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되었다. 특별찬양은 항존직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선교회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대표기도는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이 인도하였다. 박병욱 목사는 새벽설교를 통해 성탄은 온 우주의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대림절 기간을 통해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설교하였다.

## 평신도 선교대학

한민족 평화선교연구원소에서 주최하는 평신도 선교대학이 우리 교회에서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리고 있다. 6주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개강예배와 종강예배, 8번의 강의로 구성된다. 커리큘럼은 1) 선교, 새롭게 이해하기(최낙규목사), 2) 현대선교신학의 새로운 흐름(임희모교수), 3) 성서와 선교(조은식교수), 4) 선교와 문화, 어떻게 이해할까(김영동교수), 5) 다시 보는 세계교회의 선교역사(황홍렬목사), 6) 다시 보는 한국교회의 선교역사(황홍렬목사), 7) 한국교회의 선교과제와 전망찾기(진희근목사), 8) 선교활동 평가 워킹(우예현목사)이다.

강의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선교에 대한 개념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선교의 영역은 온 세상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교회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교회의 사역전체를 선교라고 본다.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며, 살림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개인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선포, 제자훈련과 교회 성장이 필수적이고 사회구원을 위해 화해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병행해야 한다. 선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선교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등록한 사람들은 새민족교회, 수송교회, 안동교회 등 각 교회에서 몇 명씩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강명준 장로, 강춘자 권사, 민남홍 성도, 김미정 집사, 신선자 집사, 고명수 집사, 오정순 집사, 민경임 집사, 임동희 집사, 박영석 집사, 김윤성 집사,

안일현집사 등이다.

## 사랑의 맛 잔치

2005년도 여전도회 4지회가 연합으로 하는 사랑의 맛잔치가 11월 6일(주일)에 있었다. 친교실에서 2부 예배 후에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다. 장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고, 또 많은 수익금을 얻어 기쁘게 결산했다.

한빛 여전도회는 찰시루떡과 스파게티, 파전으로 284,000원의 수익을 올렸고, 한샘여전도회는 잔치국수, 김치, 조림, 북어찜, 각종 반찬 등으로 1백만 원을, 한길여전도회는 오이소박이, 호박죽, 떡볶이, 어묵, 가래떡, 냉면 등으로 433,000원을, 한사랑여전도회는 샌드위치, 케익, 커피, 닭강정 등으로 366,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잔치였지만 온 교우가 즐겁게 참여하고, 식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며, 총 수익은 1,933,000원으로 모두 장학기금으로 마련되었다.

## 남녀선교회 임원교회

	회 장	부회장	총 무
한누리	홍영표	이홍석	강명준
한 메	김동형	김윤성	신영식
한가람	안일현	이정배	민남홍
한 빛	민기숙	김희수	김정수
한 샘	안부강	김경호	이윤희
한 길	김휴숙	최문수	유현일
한사랑	이순옥	유해옥	김연숙B
청년회	박민아	-	김영빈

## 신병교육대 방문

11월 20일 안동청년부 박민아 장외 20명과 한가람남선교회가 회원들이 신병 교육대를 다녀왔다. 원사님과 안동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전진교회 예배당이 꽉 차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다. 이희창 형제의 인도로 찬양예배를 드리며, '예수사랑하심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등의 찬양을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다. 자매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독창을 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이었다. 이윤희

외 4명의 청년이 "하나님을 느낌"이라는 찬양으로 수화를 하였고, 김현철 형제가 조PD의 church 2 da street이란 제목의 찬양과 랩을 하여 흥분의 도기니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주희, 김바울 형제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을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로 하였다.

김용원 장로는 신병들의 건강과 믿음생활, 앞으로의 군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성철 목사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2년의 생활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지내라는 내용과 격려의 말씀이었다. 신병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은혜롭고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했다.

## 유치부 작품발표회

지난 27일 2부 예배 시간에 유치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배경희 선생의 진행으로 성경구절 시편 23편 1절, 마태복음 7장 24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을 암송하였다.

이번 해부터는 영어 챗트도 배워서 성경구절과 함께 손유희로 발표하였고, 찬양으로는 '무화과 나뭇잎이', '살롬나라 어린이'를 불렀다. 새로 리모델링한 교육관에 유치부 어린이와 선생님들의 소개, 설교 말씀,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한 해 동안 있었던 행사에 대한 사진 등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시되어 교우들이 믿음의 꿈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11월담임목사동정

- 11월 2일 백병원신우회설교
- 11월 3일 실천신학대학원 Vision 300 참가
- 11월 10일 안국역 1일 명예역장 행사 참가
- 11월 17일 세계선린회 후원자 모임 참가
- 11월 24일 생명목회 실천협의회 총회 참가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2006 선교대회 준비

2006 선교대회 및 선교전략회의를 앞두고 총회가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회 세계선교부(부장:손승원 총무:신방현)는 2007년 선교사 파송 1백주년을 앞두고 개최될 2006 선교대회 및 선교전략회의에 참석할 선교사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 한편 일부 선교대회 일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세계선교부는 내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2006 선교대회의 방향을 선교에 대한 반성과 회개운동에 맞추기로 했으며 지역별 선교대회와 22개 분야의 주제에 따른 전략회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2006 선교대회는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2개 팀이 동서로 돌며 수요일과 주일에 1백개 교회에 흩어져 지역별 선교대회와 교단의 선교전략회의를 개최한 뒤, 7월 1일 제주도에서 모여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세계선교부는 선교대회에 초청할 선교사의 규모를 1백여 명에서 1백50여 명으로 정하고 선교경력 5년 이상된 선교사와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략회의를 위한 분야별 주제는 자비량 전문인 선교를 비롯해 미전도 종족선교와 의료선교, 북방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 선교사자녀교육, 청년·대학생선교, 북한선교, 이슬람권선교, 불교권선교, 힌두교권선교, 기독교교육자, NGO선교, 스포츠문화선교, 선교행정, 토털케어, 교회선교활성화, 선교신학, 선교훈련교육, 선교사회과학, 어린이선교, 청소년선교 등이다.

이와 관련,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 신방현목사는 "2006 선교대회는 본교단 선교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져야 2007년 대부흥운동 1백주년 행사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번 선교대회는 회개운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세계화는 反신앙적"



'전환시대, 새 시대를 이끌어갈 개혁의 영성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지난 4일 덕수교회(손인웅목사 시무)에서 열린 제4백88주년 종교개혁 기념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김은혜박사(장신대 초빙교수)는 세계개혁교회연맹 제24차 총회에서 발표된 아크라 신앙고백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이 자리에서 "아크라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신앙을 근원에서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경제세계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개혁교회의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정치경제적인 내용과 문화적, 종교적 영역까지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 세계화에 대한 세계개혁교회의 공동의 신앙고백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도전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박사는 "아크라 신앙고백은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재현되며 인종차별주의로 또 다시 나타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불의의 요소인 경제 세계화와 그 것을 주도하는 '제국'을 신앙으로 거부할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 아크라 신앙고백을 근거로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신자유주의와 경제세계화의 반 신앙적 본질에 대한 교육을 필요성과 함께 대안이 없다는 신화를 해체하고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갈 것, 저항의 영성으로 다양한 대안들과 목회적 모델을 창조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논찬에 나선 지형은목사(성락성결교회)와 김주환교수(한신대)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 목사는 발제자의 글에서 '사회복지', '분배의 정의', '사회주의적 분배의 정의' 등이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사항들로서



토지공개념이라든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개념 등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1부 발제와 논찬에 이어 이성구교수(고신대) 이문식목사(남서울산본교회)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 2부에서는 한국교회의 개혁의 영성 과제를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보다 교회와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필요성이 제기했다.

## 교회협

###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선서를 하고 있는 신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14일 제54회 총회를 개최한 교회협은 외형상으로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일단 스스로 긴축 재정을 통해 균살을 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 10월 20일 총회를 앞두고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발전과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에 걸맞는 협의회의 위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는 2006년이 남북한 교회 교류를 시작한 글리온회의 2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해 이를 계기로 교회의 평화 통일 운동에 대한 의지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이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합의한 부활절연합예배 공동 개최 등을 통해 한국교회 연합활동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교회협의 방향 설정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교회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회를 개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교회협은 물론 한국 교회의 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교회협은 90년대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이에 걸맞는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왔던 과거에 안주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사학법 개정

### '교계-정부' 함께 고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지난 3일 국회 의원식당에서는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이미경, 이하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과 본 교단 안영로총회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의 간담회가 열려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미경의원 주선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본 교단 총회장 안영로목사(광주서남교회)와 대사회문제대책위원장 유의웅목사(도립교회) 기독교학교회협의회 사무국장 김정섭장로 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목사 등 9명의 교계 인사가 참석했으며 정부 측 관계자로는 이미경의원을 포함해 사개특위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배석했다.

안영로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기독교내에서도 가장 많은 미션 스쿨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의 설립 목적이 복음전파인데도 설립목적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방형 이사제로 인해 종교가 다른 사람이 이사회로 들어 올 경우 학내에서 예배와 종교 교육 수행이 난관에 부딪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 또한 최성규목사는 “종단에서 세운 학교만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학교와의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타 종교들도 설립정신이 교육과 운영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변했다.

이 날 사학법개정에 대한 열띤 공방을 주고 받은 참석자들은 서로의 견해 차이만을 확인한 채 모임을 마쳤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사학 육성과 사학 비리 척결에 초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교계가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요구를 수렴해 갈등 폭을 좁혀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예장 기장 기감 농민목회자회 국회 앞에서 기도회



3개 교단 농촌목회자 1백여 명은 22일 오전부터 '재를 뒤집어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를 주제를 들고 집결해 예배와 기도회를 계속했으며, 22일 밤에는 노상에서 철야기도회를 이어갔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본교단 환경호목사가 참석해 설교했으며, 참석자들은 십자가를 메고 국회앞 도로에서 1인 릴레이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당사자인 농민이 반대하는 쌀협상을 강행하려는 것은 반민주적인 폭력이며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3백50만 농민들의 피울음과 함께하며 쌀협상 국회비준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박원근)는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쌀 개방을 말하기 전에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더욱 힘쓰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간 협의기구 구성 △식량자급목표치 법제화 △쌀값 보장 등을 촉구하며 정부가 종합적인 생명농업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장 총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비준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고 “쌀협상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성명은 또 “피 땀 흘려 농사지는 벼를 불태우고 생산된 쌀을 길거리에 쌓아놓은 채 기약 없는 농성에 들어간 농민들의 아픔은 곧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위기”라면서 “7백만 농민의 절규에 귀 기울이며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환경문제 해법 교회가 찾는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본 교단의 대응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90회기 1차 회의를 가진 총회 환경보전위원회는 정재영장로(경주중앙교회)를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의 조직 구성을 마친 뒤 본 교단의 환경선교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나갈 녹색교회 선정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6월 첫째주로 지정돼 있는 환경선교주일에 맞춰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국교회가 환경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갖가지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위원회는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양재성) 등 교계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환경목회를 실천하고 보급시켜나갈 녹색교회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본 교단은 지난 2001년 제87회 총회에서 '21세기 환경선교선언문'을 주제로 한 지침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 지침서를 통해 “교회는 환경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말씀선포와 교육, 예전과 친교, 사회봉사 각각의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이 땅에 생태정의와 생태영성을 고양해 창조보전에 앞장설 것을 독려해왔다.

## "황 교수, 난자 채취 경로 밝혀라"



최근 미 피츠버그대 새튼교수가 윤리적인 문제를 들어 황우석교수와와의 결별을 선언한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강영안 외 2명)이 "황우석교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난자 채취의 경로를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한 기운실은 이밖에도 "연구자의 난자를 공여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현 생명윤리기본법도 차제에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와 관련해 기운실 김희경간사는 "새튼교수가 윤리적인 문제로 결별을 선언한 상황에도 황 교수는 사건의 본질인 난자 채취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은 새튼교수와와의 결별이 연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에 대한 해명을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번에 난자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해명하지 않으면 국보급 과학자인 황 교수의 명예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명윤리기본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한 기운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구자의 난자를 공여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학계와 과학계에서조차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생명윤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인복지 노하우 중국에 전수

본 교단의 노인선교 및 복지에 대한 노하우가 중국에 전수될 전망이다.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는 지난 2일 중국 연길시에 소개한 연남교회(지덕

문전도사 시무)에서 이 교회 소속 교인과 노인 1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내 첫 노인학교 개교식과 입학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이를 위해 동 연합회 회장 윤의근목사와 사무국장 강채은목사가 연남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중국 연남교회에서 열린 노인학교 개교식 및 입학감사예배에 참석한 교인과 지역민들

연남교회는 현재 4백여 명의 교인 중 25퍼센트가 노인인 것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편. 이에 따라 노인복지와 선교에 대한 교회와 지역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 교단 노인학교연합회에 노인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 날 개교예배를 드리게 됐다.

지덕문전도사는 "현재 교회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1백명이 훨씬 넘어 믿음 안에서 이들을 양육해 낼 대책이 시급했다"고 노인학교 설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교회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아버지 학교 등 건강한 가정과 복음의 일꾼을 키워 낼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연남교회는 우선 한글과 노래, 춤, 건강에 대한 특강 프로그램으로 노인학교 운영을 시작한 뒤 전문 인력과 자원 봉사팀의 보강을 통해 좀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립할 방침이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북손우물기

2005년 12월호 · 통권 제 154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동교회

발행인 : 박 병 옥

편집인 :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 2005년 12월 3일